

〈燕行歌〉의 독자와 작가의식*

최상은**

|| 차례 ||

- I. 머리말
- II. <연행가>의 독자와 작품전개
- III. 사행과 유람, 그리고 작가의식
- IV. 마무리

【국문초록】

문학작품은 텍스트 자체로 존재하기도 하지만 독자를 만나 실현화되는 것이다. 따라서 작가와 독자 역시 작품 이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영역이다. 지금까지 작품과 작가에 대한 연구는 어느 정도 축적되어 있지만 독자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작가와 작품, 그리고 독자의 상관관계를 통해서 홍순학의 <연행가>를 논의해 보았다.

<연행가>는 예정된 독자가 있었고, 그 독자는 집안 여성들이었다. 작가는 사신으로서 공식적인 여정을 소화해야 하는 입장과 작품을 기다리고 있는 여성 독자들의 관심 사이에서 많은 고민을 했을 것이다. 작가 홍순학은 전자보다는 후자에 무게를 두고 <연행가>를 지었다. 공식적인 여정은 최소화하고 여성들의 관심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개인적 견문과 흥미 위주의 내용을 중심으로 작품을 창작한 것이다. 공식적인 여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락적인 연회 장면을 상세히 묘사한 것도 여성 독자들의 흥미를 복돋우는 데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성리학적 규범에서 이탈하여 유흥적 풍조로 흘렀던 19세기 당시의 문학사적 변모와도 관련이 있다.

* 본 연구는 2016년도 상명대학교 교내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하였음.

** 상명대학교 한국언어문화학과 교수

작가의식 또한 독자와 무관하지 않다. <연행가>는 여성 독자들을 위하여 창작된 작품이기 때문에 사신의 서장관으로서 국내외 정세에 대하여 언급한 내용은 거의 없다. 있다 하더라도 많은 사건들 중 하나로 언급하고 가볍게 넘겨 버렸다. 그것은 흥밋거리를 요구하는 여성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사행 관리로서의 현실인식보다는 개인 유람객으로서의 견문과 정서를 중심으로 작품을 전개했기 때문이다.

한편, 홍순학은 서인 명문거족 출신으로서 보수적인 ‘소중화의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작품 전반에 걸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청나라의 앞선 문물에 대하여 경탄 어린 시선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여행지에서 처음으로 경험한 견문에 대한 놀라움이지 청나라에 대한 오랑캐 의식이 약화되거나 없어진 것은 아니었다.

여성 독자를 전제로 한 <연행가>의 이러한 보수성과 개방성은 보수적인 <계녀가>류, 그리고 거기서 일탈하려는 <화전가>류와 <자탄가>류가 공존했던 규방가사와도 상관이 있다. 나아가 소중화의식과 같은 보수성은 흥미 위주로 호른 <연행가>를 여성들이 자유롭게 향유할 수 있는 명분이 되기도 했다.

이와 같이 볼 때, <연행가>는 여성 취향의 작품으로서 기존 사대부 문학의 규범을 일탈하여 흥미 본위로 작품을 전개하고 당시 문학의 풍조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개방성을 보여 주면서도 소중화의식으로 무장한 강한 보수성을 띠고 있기도 하다. 이것이 매우 보수적인 것 같지만 개방적인 성격을 지닌 <연행가>의 양면성, 이행기 문학적 성격이다.

주제어 : 사행, 유람, 여성 독자, 작가의식, 보수성, 개방성

I. 머리말

조선 사대부들에게 있어서 中原은 동경의 세계였다. 천자의 나라이고 유교의 성현과 선망의 대상이었던 문학가들의 고장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19세기 당시까지 개인적인 중원 여행은 극히 힘들었기 때문에 그 동경은 상상의 여행, 臥遊로써 해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연유로 와유문학이 성행했다. 상황이 이러했기 때문에 사행의 일원으로 발탁되어 중원을

다녀올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것은 개인과 가문의 영광일 뿐만 아니라 가슴 설레는 일이었다. 그런 여행이었기에 사행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朝天錄, 燕行錄 등 수많은 사행문학을 남겼던 것이다.

자료가 많은 만큼 연구도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특히 洪淳學의 <연행가>¹⁾는 사행가사 중 가장 주목을 받은 작품으로 서지와 이본, 형식과 내용, 표현, 작가와 독자, 작가의식, 작품구성 등 다양한 관점의 많은 연구 결과가 축적되어 있다.²⁾

이 글에서는 먼저 <연행가>의 독자와 작품세계에 대하여 논의해 보고자 한다. 예정된 독자가 있었다면 작가는 독자의 취향이나 요구에 부응하는 작품세계를 구성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동안 燕行文學의 독자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지만 <연행가>의 독자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문 사행록과 사행가사의 독자에 대한 기존 논의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연행문학의 독자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연구한 것은 채송화³⁾이다. 채송화는 홍대용의 <을병연행록>이 집안 여성을 위해 지은 작품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작품의 내용, 진술방법, 구성 등에 대하여 정밀하게 분석하였다. 이동일⁴⁾은 <연행가>에 나타난 서술자의 복합적 시선에 대한 논의를 하면

1) 홍순학의 <연행가>는 다른 <연행가>와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편의상 <병인연행가>로 쓰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홍순학의 <연행가> 외에 <연행가>라는 제목의 작품이 없고 이 글은 조윤제본 <년행가>를 텍스트로 하므로, 그 현대어 표기인 <연행가>를 사용하고자 한다. 임기중, 『연행가사연구』, 아세아문화사, 2001, p.5, 참조.

2) 작품 관련 문헌과 작품 원전 등 <연행가>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는 심재완의 『일동장유가·연행가』(교문사, 1984)와 임기중의 『연행가사연구』(아세아문화사, 2001)가 대표적이다.

3) 채송화, 「<을병연행록>과 여성 독자」, 『민족문화사연구』 제55집, 민족문화사학회, 2014, pp.427-461. 이 글은 필자의 「<을병연행록연구>」(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의 일부를 재구성하고 보완한 것이다.

서 예비적 고찰로서 수용계층과 가사의 유통방식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여기서 이동일은 <연행가>의 서두와 결말의 내용을 근거로 홍순학이 어머니나 아내 등 부녀자층을 주된 독자로 상정했다고 했다. 다만, 논의의 근거를 주로 홍대용의 <을병연행록>에 두고 추론했다는 점과 당시 가사의 유통방식으로 논의를 확대함으로써 독자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최미정⁵⁾은 19세기 조선 시가의 유흥적 풍조와 퇴영적 낭만주의에 주목, 연행가사에 여성 편력을 자세하게 쓸 수 있었던 것은 당시의 여성들이 별로 부정적·비판적으로 생각하지도 않았고 특별한 사건으로 여기지도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영규⁶⁾는 <서행록> 일람각본의 구술적 문맥을 연행록본과 비교하면서 연행록본은 남성용 버전이고 일람각본은 여성적 감성이 담겨있다고 했다. 그리고 조규익⁷⁾은 사행가사를 포함, 국문으로 기록한 사행록은 우선 수용계층으로서 부녀자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했다. 국문 연행문학 작품이나 관련 기록들, 그리고 기존연구를 통해서 국문 연행문학의 독자는 대체적으로 여성이었다는 것이 밝혀졌고 독자를 염두에 둔 작품분석도 이루어졌다.

이 글에서는 연행가사의 독자에 대한 기존의 연구에서 시도한 정밀한 작품분석 방법과 포괄적인 관점을 참고로 하여 홍순학의 <연행가>를 다루어 보고자 한다. <연행가>가 여성 독자를 위해 창작되었다면 당시에 성

4) 이동일, 『<병인연행가>에 나타난 서술자의 복합적 시선과 그 의미』,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pp.21-25.

5) 최미정, 『연행가사의 국내 여정에 나타난 취한 사행의 모습과 그 의미』, 『한국학논집』 제40집,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10, pp.411-413.

6) 한영규, 『새자료 <무자서행록>의 이본으로서의 특징』, 『한국시가연구』 제33집, 한국시가학회, 2012, pp.191-224.

7) 조규익, 『사행가사의 해외체험과 세계관』, 『국문사행록의 미학』, 도서출판 역락, 2004, p.206.

행하던 규방가사와도 친연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논의를 진행, <연행가>의 작품세계는 물론 문학사적 의의의 한 단면을 가늠해 보고자 한다.

다음으로는 지금까지 논란이 가장 많았던 작가의식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작가의식에 대한 그 동안의 연구는 주로 사신이라는 작가의 신분을 중시, <연행가>가 조선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존명배척 의식을 드러냈다고 보는 시각이 많았다.⁸⁾ 반면, 조규익은 <연행가>는 오랑캐의 존재는 이미 청나라에서 서양으로 바뀌었음을 보여주고 화이관을 이미 극복한 상태에서 부분적으로는 그에 대한 관습적 집착을 보여 주고 있다고 했다.⁹⁾ 유정선은 <연행가>는 보수적 한계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18세기의 연행가사들에 비해 반청의식이 약화되어 있고 공적인 임무 수행을 담은 내용의 비중이 적다고 했다.¹⁰⁾ 김윤희도 <연행가>는 작가의식이 강한 대명의리론에 입각해 있으면서도 연경에 대한 개인적 ‘遊覽誌’로서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했다.¹¹⁾ 우하림 역시 작품구성과 작가의식의 변화를 중심으로 ‘儒者’와 ‘遊子’ 의식, 대청의식, 작품의 문학사적 위치에 대하여 논의하였다.¹²⁾

사행은 공식적인 임무를 가지고 가는 여정이었지만 관심사에 따라 개인적이고 비공식적인 일정도 많았다. 따라서 작가의 창작의도에 따라서 작품

8) 이주영, 『연행가고』, 『한국고전시가작품론』 2, 집문당, 1992; 공혜정, 『<연행가>에 나타난 홍순학의 사대부의식과 대외관 연구』, 부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김유경, 『19세기 연행 문학에 나타난 중국 체험의 의미』, 『열상고전연구』 제21집, 열상고전연구회, 2006; 김윤희, 『조선후기 사행가사의 세계 인식과 문학적 특질의 변모』,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김정화, 『19세기 연행가사에 나타난 대외관 및 서술태도에 대한 연구』, 『어문논총』 제58호, 한국문학언어학회, 2013.

9) 조규익, 앞의 글, pp.226-237.

10) 유정선, 『18·19세기 기행가사의 작품세계와 시대적 변모양상』, 18·19세기 기행가사연구, 도서출판 역락, 2007, pp.138-142.

11) 김윤희, 앞의 글, pp.169-184.

12) 우하림, 『<병인연행가>의 자자의식과 서술특성』,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내용은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 기존 연구에서도 부분적으로 논의되었던 개인 유람의 측면, 그리고 작가의식에 있어서 존명배치의 식 여부 등도 독자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독자에 대한 논의의 연속선상에서 검토해 보고자 한다.

II. 〈연행가〉의 독자와 작품전개

연행가사는 대체로 여성 독자를 염두에 두고 지었음을 작품내용이나 작품 관련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여성 독자를 염두에 두고 지었다면 작품전개 역시 여성들의 관심이나 취향에 걸맞게 구성했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홍순학의 <연행가>의 작품전개를 독자와 관련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어화 던지간의 남즈되기 쉽지안타 / 평싱의 이늑몸이 둥원보기 원헛더니 /
병인년 춘삼월의 가례척봉 되오시니 / 국가의 덕경이오 신민의 복녹이라 /
상국의 주청홀식 삼스신을 너여시니 / 상스의 뉴승상과 서시랑은 부스로다 /
형동어스 서장관은 직척이 둥홀시고 / 겸직은 스복판스 어영낭청 띄여시니 /
시년이 이십오라 소년공명 장흐도다

잘잇더니 삼각산아 우리집이 어딴메냐 / 홍제원 모화관의 낙양친봉 서로
못고 / 인정전 숙비 후의 동화당 입시하니 / 왕명의 미친 비라 무스왕반 복명흐
고 / 이십삼일 저문후의 집으로 도라오니 / 혼실이 단환하니 즐겁기도 그지업
다 / 총계스 넷곡조를 의구히 노력하니 / 둥원 싱각하면 의의한 일장춘몽인가
흐노라¹³⁾

13) 심재완, 앞의 책, p.442, p.568.

<연행가>의 서두와 결말 대목이다. 서두에서 작가는 천지간에 남자되기가 쉽지 않는데 자신은 소년공명을 얻었으니 스스로 장하다고 자랑했다. 가례책봉이라는 국가적인 경사에 25살 젊은 나이로 주청사의 서장관으로 발탁됐으니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웠을 것이다. 결말에서는 한양으로 돌아 오자마자 집에 대한 그리움부터 드러냈다. 그리고 궁궐에 들어가 서둘러 무사왕반 복명하고 집으로 달려가 온 집안의 환대를 받고 그지없이 즐거워했다. 서두에서는 ‘남자’로서 장한 모습을, 결말에서는 공적 업무보다는 ‘집’에 돌아온 감격을 과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다음 내용을 참고로 하자.

(가)

이 칙을 만든 뜻은 환당의 노친계서 / 보시고즈 흥시기로 퇴강 기록흥여스니 / 규중의 부인네와 북경 구경 못하시니 / 외간의 남즈라도 이 칙 볼 만흥은 지라¹⁴⁾

(나)

경술 계춘의 누 동서 계녀을 주려 소일노 등출흥니라¹⁵⁾

(가)는 갑신년인 1884년에, (나)는 경술년인 1910년에 필사된 일본의 마지막 부분이다. (가)는 노친이 보고 싶어 해서 기록한 것인데 집안 부인네들을 주 독자로 하고 북경 구경 못한 남자들도 볼 만할 것 같아 이 책을 만들었다고 했고, (나)는 누이와 동서, 딸에게 주려고 필사했음을 밝혔다. (가)(나)를 참고로 할 때, 서두와 결말의 내용은 여성에 대한 남성의 자기

14) 임기중, <연행가>(1957) 『역대가사문학전집』 42, 아세아문화사, 1998, p.309.

15) 임기중, <연행가>(1956), 위의 책, p.224.

과시임을 알 수 있다.

<연행가>의 주 독자가 여성들이었다면, 19세기 당시 여성문학으로서 가장 많은 작품을 남기고 있는 규방가사와 관련하여 살펴볼 여지가 있다. 당시는 문학 장르, 작품 간의 교섭 현상이 빈번하게 일어나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어와 우리 봉우들이 아내 말삼 들어보게 / 천생만물 내실적에 금수가 아니
되고 / 남녀난 유별하고 봉우난 유신이라 / <...> / 가소롭고 가소롭다 인간만
세 가소롭다 / 여자동유 서로 만내 한번 놀기 어렵거든 / 무심한 남자들아
우리 말삼 들어보소 / 남자되기 부럽도다 소년공명 귀남자는 / 문장명필 높이
배와 도덕을 쌓은 후의 / 여기방장 놀으실 새 한양서울 올라가서 / 국가태평
문무간에 입신양명 하올적에 / <...> / 호걸남자 되엇더면 경화시체 쏜을받아 /
좋은이복 차려입고 남경가자 북경가자 / 서울가자 부산가자 남아호걸 상봉하
여 / 동무친척 다못엿다 청춘소년 절문새에 / 도인봉에 올라가서 금수강산
구경하고 / 그래도 못하오면 꽃이라도 구경하고 / 구경하며 단이젠네¹⁶⁾

<화전가라>의 앞부분이다. 화전놀이를 앞두고 들뜬 마음을 노래한 부분인데, 남자로 태어났더라면 소년공명 입신양명하여 국내외 좋은 곳 다 구경하며 돌아다닐 것이라고 했다. 화전놀이의 흥취에 앞서 여자로 태어난 한풀이를 하면서 남자들에 대한 부러움을 표출한 것이다. <연행가>는 마치 이 <화전가라>에 대한 화답가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연행가>의 서두 “어화 텃지간의 남즈되기 쉽지안타”는 <화전가라>의 서두 “무심한 남자들아 우리 말삼 들어보소 / 남자되기 부럽도다”와 짝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남자라고 다 소년공명하고 남경가고 북경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6) <화전가라>, 고전자료편찬실, 『규방가사』 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79, pp.272-273.

는 의미다. 그런데 자신은 소년공명하고 북경을 다녀왔으니 얼마나 장하고 과시를 한 것이다. <연행가> 당시의 여성 독자를 대상으로 한 기행가 사류에서도 자기과시나 무용담 수준의 풍류담을 늘어놓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¹⁷⁾ 그리고 <연행가>의 서두 “어화 텃지간의 남즈되기 쉽지안타”처럼 “어화(또는 어와)”라는 감탄사로 시작하는 작품 서두는 당시 규방가사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었다. 이런 서두는 국내 기행가사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작품 결말이나 발문에서 작품 창작(또는 필사)의 취지나 시기를 밝히는 것도 유사하다.¹⁸⁾ 서두와 결말의 구성을 통째로, <연행가>는 당시 여성들에게 많이 읽히던 규방가사나 기행가사의 풍토 속에서 창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행의 기회가 거의 없었던 여성들에게 기행가사는 그 자체가 관심거리였을 것이다. <화전가라>의 서두에서, 자기 고장을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 화전놀이 정도밖에 즐길 수 없었던 여성들의 여행에 대한 관심과 열망을 확인할 수 있다.¹⁹⁾ 그래서 작가는 여정을 일일이 제시하면서 특별한 풍경이나 유적지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소개하고 자신의 감회를 구체적으로 서술했던 것이다. 가 보지 못한 지역에 대한 기행가사의 여정은 독자들에게 흥미로울 뿐만 아니라 선망의 대상이 되었을 것이다. 18세기 초에 이미 상층 여성들 사이에 연행록에 대한 수요가 있었고 19세기

17) 당시에 이러한 문학적 풍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북행가>, <북천가>와 관련하여 다시 논의할 것이다.

18) 박희현, <지헌금강산유산록>, 최강현, 『기행가사자료선집』 1, 국학자료원, 1996, pp.333-359의 서두와 결말 참조. “어와 인심 천지간의 부귀영명 마달손가/공명이 유렵흔히 세도문이 닳치였고/치손을 흐라 하니 세경이 쇼활하의/하음 업슨 이 너 평칭 스십여세 되어우나/<...>/이 가스 즈시 보면 금강 귀경 안조 보리/돈문줄필 이뿐이라 그만 저만 유리치니/을묘 습월일 박지헌 희현은 서호노라”

19) 이 시기에 많이 나온 기행가류 규방가사의 창작도 이러한 기행가사의 전통에 영향받은 바 컸다고 볼 수 있다. 유정선, 앞의 글, pp.207-208, 참조.

에는 궁중의 여성들도 여행록을 섭렵할 정도였음²⁰⁾을 고려할 때 기행가사에 대한 수요는 매우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여행가>는 여정에서도 여성들에게 흥미를 끌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고 있다. 먼저 국내 여정을 살펴보면, 사신 일행이 임금을 하직하고 여정에 올라 홍제원에서 배웅을 받고는 먼길 떠나는 초창한 심정을 토로하면서 가장 큰 걱정은 집안일이라고 했다.

집안을 심각하니 심회 창년홀스
현당의 빅발노인 싱앙가로 되서잇고
청춘의 절문 안희 금슬이 남다르다
무형데 혈혈독신 외롭도다 이늑몸이
원노의 써나가며 가스부탁 홀곶업다
봉명이 지중키로 무가늑하 홀일업다²¹⁾

다른 누구보다 늙은 어머니와 젊은 아내를 걱정하였다. 특히 형제없는 혈혈독신이라 먼길 떠나면서도 가사를 부탁할 사람이 없음을 한탄했다. 앞서 재상 어른과 명사·친구, 문직이며 청직이가 전별하러 나왔을 때는 “잘 가라, 잘 잊쓰라” 정도의 인사말만 하고 헤어졌지만 고향에 계시는 어머니와 아내를 두고 떠나는 마음은 창연하다고 했다. 집안 여성들이 읽을 글이기 때문에 다른 누구보다도, 다른 어떤 일보다도 어머니와 아내에 대한 걱정과 사랑을 표면에 내세운 것이다.²²⁾ 이 대목은 사신 갔다가 무사히 귀환했을 때 누구보다 집안사람들이 환대했다는 결말의 내용과 짝을 이룬다.

연행 사신들의 국내 여정에서는 수많은 연회가 열렸다. 연행가사에서도

20) 채송화, 앞의 글, pp.456-459, 참조.

21) 심재완, 앞의 책, p.444.

22) 이동일, 앞의 글, pp.21-25, 참조.

이런 연회에 대하여 언급을 하고 있는데 작품에 따라서 그 편차가 커서 흥미롭다. 지금까지 남아 있는 총 7편의 연행가사에서 연회에 대하여 서술한 대목을 살펴본다.

용만(龍灣)의 대취(大醉)하야 월강(越江)한 줄 몰랐더니 / 달 밝은 소세발의 시내소리 들리거늘 / 잠깨야 물어보니 구련성(九連城) 아래로다²³⁾

서산의 히 진 후에 역마를 밧비 모라 / 벽계관 적막한 디 대취코 너머드니 /련꺈 단침의 가지록 식로왜라²⁴⁾

남누설월의 금연을 버렸느디 / 빅디홍장이 좌우의 버러시니 / 타향 평수의 낙식라 하련마는 / 절식금가는 여흔을 바아놋다²⁵⁾

진목헌 드러가니 유슈는 구면이라 / 유찬을 정비하야 깃고를 위로한다 / 구옥이 섭섭홀스 여귀 와 작별하느²⁶⁾

다정홀손 홍상셔는 셔도주인 되어서니 / 닻한구료 관찰스요 황룡전슈 상형인을 / 글지어 슈창하며 술부어 니별하고²⁷⁾

23) 남용익, <장유가>, 임형택, 『옛노래, 옛사람들의 내면풍경』, 소명출판, 2005, p.27.

24) 유명천, <연행별곡>, 임기중, 『연행가사연구』, 아세아문화사, 2001, p.124. 이 책에는 작자미상으로 되어 있으나 유명천의 작품으로 밝혀졌다.

25) 박권, <서정별곡>, 임기중, 위의 책, p.131.

26) 김지수, <무자서행록>, 임기중, 위의 책, p.143.

27) 서염순, <연행별곡>, www.gasa.go.kr(한국가사문학 DB)

곽미라, 『<임자연행별곡>의 작자와 창작시기 변증』, 『한국고시가문화연구』(한국고시가문화회, 2012). 이 논문에서 필자는 李宜顯(1669~1745), 또는 崔遇亨(1805~1878)의 작품이라고 알려져 있는 <임자연행별곡>의 작가가 서염순(1800~?)이라고 변증하였다.

17세기 작품인 남용익의 <장유가>·유명천의 <연행별곡>·박권의 <서정별곡>, 19세기초·중반의 작품인 김노상²⁸⁾의 <서행록>, 서염순의 <연행별곡>의 한 대목이다. 연회의 결과를 ‘대취’라고 하거나 연회 장면을 간략하게 설명하는 정도에서 그쳤다. 다른 대목에서도 “장일취, 취한 술, 취중” 등의 표현이 더러 나온다.

그런데 19세기 후반 작품인 홍순학의 <연행가>와 유인목의 <북행가>는 연회 장면을 매우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어서 연행가사의 달라진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연행가>의 한 대목을 살펴보자.

다담상을 물녀주고 기싱불너 술권하니 / 큰상을 바다노코 희식니 만면혼
중 / 어렵고도 붓그러워 엇지홀 줄 전혀 몰나 / 좌불안석 흥는 모양 그도 쏘한
장관일다

딕풍악 드러노코 가무를 구경호즈 / 으릿다운 노리소리 청천의 높히 췌다 /
춤추는 긴스밋는 바람의 나붓긴다 / 눈압히 버린 거시 녹틱홍충 이 아니라 /
울긋불긋 고고 모양 춘심이 호탕호고 / 교언영식 저 틱도는 정신을 호리운다 /
저의끼리 시긔호여 누구을 후리라고 / 들으니 식계상의 영웅열스 업다호디 /
어렵도다 이늑뭉미 한미혼 집 스릅으로 / 이십여년 칙상물임 줄직이 자라나서 /
강산풍월 죠흔 곳의 어딤 혼 번 도라써랴 / 청누주스 발뻗터며 외입물정 알아
쓰라 / 처음으로 당히보니 졸풍류를 면홀소냐²⁹⁾

앞 대목은 여정에서 처음으로 벌어진 평산부 연회 장면이다. 기생이 있

28) 한영규, 『새자료 <서행록>의 이본으로서의 특징』, 『한국시가연구』 제33집, 한국시학회, 2012. 이 논문에서 필자는 지금까지 <서행록>의 작가가 김지수金芝叟라고 알려져 왔는데 ‘지수’가 김노상의 號임을 밝혔다.

29) 심재완, 앞의 책, p.446, pp.452-454.

는 술자리에 대하여 호기심을 가지고 희색이 만연했지만 생전 처음 경험해 보는 연회라 어렵고 부끄러워 좌불안석하는 화자를 해학적으로 묘사해 놓았다. 뒤 대목은 대동강 부벽루 연회 장면이다. 앞서 평산부에서 있었던 첫 번째 연회에서 보여 줬던 화자의 모습과는 많이 달라졌다. 연회 구경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준다. 풍악을 울리며 춤추는 기생의 모습, 기생들의 모습에 정신을 빼앗긴 화자의 모습을 묘사하고 지금까지 책상물림으로 이런 풍류를 제대로 즐길 줄 몰라 줄풍류를 면하지 못하는 자신을 희화화했다. 앞의 작품들과는 달리 연회 장면묘사와 정서 표현이 매우 구체적이다. 이외에도 <연행가>는 곳곳에서 벌어지는 연회 장면을 묘사으로써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그러다 보니 내용 구성에 있어서도 연회 관련 일화의 비중이 매우 많아졌다. 이런 변화는 유인목의 <북행가>에서 더욱 극단적으로 나타난다. <북행가>는 국내, 국외 여정을 가릴 것 없이 작품 전반에 걸쳐서 기생 이야기를 하고 있다. 특히 봉산 기생 ‘국심’, 의주 기생 ‘화홍’과의 일화는 서사적 문맥을 동원,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 호탕한 ‘남죽일’이라고 하면서 흥미진진하게 전개했다.

이런 현상은 작가 개인의 취향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당시의 문학 풍조와도 관련이 있다. 조선후기에 들어서면서 여성 독자를 대상으로 한 국문 연행록과 연행가사 창작이 빈번하게 이루어졌고, 규방가사가 성행하는 등 여성들의 문학 활동이 왕성해졌다. 이와 함께 19세기에는 유흥적 풍조가 더욱 확산되고 있었다. 연행가사 중 19세기 후반의 작품인 <연행가>로부터 기생을 동반하여 취흥에 빠져드는 연회 장면을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북행가>에 이르러 되면 연회 장면뿐만 아니라 기생과의 사랑놀음까지 과감하게 소개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문학 풍토에서 가능했다.³⁰⁾ 그리

30) 홍재휴, 『북행가 연구』, 효성여자대학교 출판부, 1991, pp.57-59, 참조. 이 책에 의하

고 유배가사이지만 매우 유력적인 기행문학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김진형의 <북천가>와 같은 작품이 두 작품보다 10년 전에 이미 나와 있었던 것을 보면 당시 문학의 이런 풍토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상황이 이러했다면 연행가사에 나타나는 연회의 의미에 대하여 새롭게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당시 여성들이 이런 문학 풍조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연행가>나 <북행가>에 등장하는 유흥적 장면에 대하여 특별한 사건으로 여기지도 않고, 그래서 별로 부정적·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수도 있다. 따라서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로운 것을 접하여 새로운 인식을 가지게 되기를 기대하는 기행에서조차 이렇게 이미 익숙한 것의 심화, 확대, 재생산에 그친 것은 작자가 일상에 매몰되어 있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다.³¹⁾

그런데 당시의 여성들은 이런 유흥적 장면에 대하여 일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였다기보다는 대단한 흥밋거리로 여기고 재미있게 즐겼던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김진형의 <북천가>도 여성 독자를 염두에 두고 지은 작품인데 안동 지방에서는 작가의 유배사실과 함께 작중 인물인 기생 ‘군산월’의 이름까지도 널리 알려져 있었다. 사대부들은 이 작품을 신랄하게 비난했지만 그럴수록 부녀자들은 더 재미있게 읽었다고 한다.³²⁾ 뿐만 아니라, 애정가사인 <군산월애원가>라는 가사 작품이 파생되어 영남지역에서 유통되기도 했다.³³⁾ <북천가>는 작가의 고향 안동 일대에 규방가사로 수용되어 애정소설을 대신하는 구실을 맡았다³⁴⁾고 할 정도로 인기 있는 작

면, <북행가>는 경상북도 북부지방 일원에서 많은 여성 독자를 확보하고 있었다.

31) 최미정, pp.411-412.

32) 김시업, 「북천가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5, p.3, 69.

최상은, 「유배가사의 작품구조와 현실인식」, 정문연 석사학위논문, 1983, p.31.

33) 고순희, 「<군산월애원가>」의 작품세계와 19세기 여성현실, 『이화어문논집』 제14집, 이화어문학회, 1996, p.92.

품이었다.³⁵⁾ <북천가>는 유배가사이면서도 가보지 못한 타 지역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기행가사로서의 매력에 낮은 지역에서 즐긴 호탕한 연회와 기생놀음의 재미를 가미하여 여성들에게 가장 좋고 흥미 있는 작품으로 읽힐 수 있게 됐던 것이다. <북천가>와 비슷한 시기의 작품인 <연행가>의 독자들 역시 이런 관점에서 작품을 수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국외 여정을 살펴보자. 국외 여정은 국내 여정과 전혀 다른 분위기로 전개된다. 압록강을 건너기 전 의주부윤의 전별연에서의 심정을 “쳐창키로 그지없다”라고 하고, 기생들과의 이별에서는 “홍상의 쏘는물이 심회를 뚫는다”라고도 했다. 압록강을 건널 때는 25년 동안 부모 슬하에만 있어서 경기 지역을 벗어나 먼길을 다녀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질까지 허약한 상황에서 반 년이나 만리행역 떠나는 걱정을 털어냈다. 황량한 이국땅에서 초라한 반찬을 대했을 때는 조금 전까지 귀한 몸이 졸지에 천하게 됐다면서 “일등명창 진지거리 슈청기싱”을 그리워했다. 도강 사실을 간단하게 언급한 <서행록>이나 <북행가>에 비하면 매우 이례적이다. 이와 함께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사행의 서장관으로서 처음으로 대국을 여

34)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제4판, 지식산업사, 2005, p.356.

35) 이원주, 『가사의 독자』, 『조선후기의 언어와 문학』, 형설출판사, 1980, pp.133-166.

이 글에 의하면, 경상북도 일원 54명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읽은 작품 380여 편 중 <북천가>가 가장 많이 읽힌 작품 3위, 가장 좋은 작품 2위에 오른 걸 보면 <북천가>의 독자가 얼마나 많았던가를 알 수 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작품으로 인정하는 까닭은 ‘가르쳐주는 내용이므로’가 1위, ‘흥미있어서’가 2위로 나왔다. 가장 좋은 작품으로 인정하는 까닭 1위가 가르쳐주는 내용, 즉 교훈적인 내용 때문이라고 했지만 가장 좋은 작품 1위는 <추풍감별곡>, 2위는 <북천가>였다는 사실은 여성 독자들이 흥미 본위의 작품을 훨씬 좋아하고 많이 읽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1980년대 조사 결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오차가 있겠지만 19세기의 상황을 추론해 볼 수 있는 유의미한 자료라고 생각된다.

행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 경기 지역을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 조선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장거리 여정을 소화해야 하는 두려움이나 걱정 등 복잡한 정서를 실감나게 보여주고 있다. 도강 전후의 복잡한 정서에 대하여 구구절절 자세히 서술한 것은 남성 독자보다는 여성 독자의 감성을 자극하고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도강 이후 여정에서는 연회나 기생과 관련된 내용은 거의 없다. 연경에 도착할 때까지는 여정을 일일이 나열하고 역사 유적지나 청나라의 특이한 인정물태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소개하고 감회에 젖기도 했다. 국내 여정과 달리 국외 여행은 모든 것이 새롭고 낯설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흥미로울 수 있는 것이다.

녹창쥬 여염들은 오식이 영농호고 / 화스치란 시정들은 만물이 변화하다 /
 집집이 호인들은 길의 나와 구경하니 / 의복기 괴려하여 처음 보기 놀랍도다 /
 머리는 압홀 짝가 뒤만 썩호 느리쳐서 / 당스실노 당괴호고 말익이를 놀너쓰
 며 / 저문빋 저구리는 깃업시 지어쓰되 / <...> / 계집년들 불만하다 그 모양
 은 웃더튼나 / 머리만 치거실러 가림즈는 아니타고 / 뒤통슈의 모화다가 뵈시
 잇게 슈식호고³⁶⁾

봉황성에서 본 여염과 시정 풍경, 胡人들의 모습이다. 호인들의 놀랍도록 기이한 옷차림새와 여성들의 용모를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다. 이어서 아이들과 노인들 모습, 그리고 집 제도, 음식과 식사장면, 짐승치기, 아이 양육, 농사하고 길쌈하기 등에 대한 묘사가 계속된다. 그리고 “변화하다, 놀랍도다” 등 감탄어를 사용, 새로운 문물을 대할 때의 느낌을 생생하게 전달하려 했다. 이후 여러 대목에서도 “굉장하다, 웅위하다, 창감하다, 즉

36) 심재완, 앞의 책, pp.462-464.

량없다, 찬란하다, 황홀하다, 휘황하다” 등의 단어를 자주 사용했다. 그와 함께 “와랑저렁, 웅경쟁경, 쏘닥쏘닥, 성큼성큼, 움실움실, 펄쩍펄쩍” 등 다양한 의성어와 의태어를 곁들여 화자가 받은 현장의 느낌을 감각적으로 표현했다.³⁷⁾ 이런 표현들은 대단하고 놀랄 만한 것들을 보고 온 자신을 과시하면서 독자들의 관심을 증폭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었을 것이다.

북경 도착 이후에는 북경의 풍물과 문화를 중심으로 작품이 전개된다. 유리창을 방문했을 때는 시장 전체를 망라할 정도로 갖가지 점포를 일일이 소개하고 진열되어 있는 물품들을 열거했다. “00푸리를 불작시면”이라는 표지어를 사용, 25가지 이상의 점포를 열거하는 화자의 시선은 여성들이 시장에 가서 들르는 곳마다 신기한 눈초리로 하나하나 살피는 모습을 연상하게 한다. 이외에도 엄청난 규모와 화려함을 자랑하는 성곽과 사찰·사원, 특이한 상례와 혼례, 기묘한 마술과 꿈 놀리기, 명나라 후예들과의 만남, 서양인들의 모습 등 조선에서는 보기 힘든 일들을 생생하게 서술해 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건문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기행가사의 성격을 충실히 갖추고 있는 <서행록>과 유흥적인 풍류에 경도되어 있는 <북행가>에 비해 <연행가>는 기행가사의 일반적인 성격과 함께 여성들에게 관심을 끌 수 있는 흥밋거리를 다양하게 동원하고 생생한 묘사와 표현 기법을 사용함으로써 많은 이본을 남긴 인기 작품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37) 의성어 사용의 효과에 대해서는 김윤희, 「19세기 장편 연행가사에 보이는 연경 풍물의 감각적 재현 양상」, 『우리어문연구』 제54집, 우리어문학회, 2016, pp.244-251, 참조.

Ⅲ. 사행과 유람, 그리고 작가의식

작가가 특정의 독자를 위하여 작품 창작을 했다면 작가의식 또한 독자와 무관할 수는 없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연행가>는 집안의 여성 독자들에게 흥미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쓴 작품이다. 당시 여성들은 규방가사의 주 담당층이었을 뿐만 아니라 기행가사나 애정가사, 그리고 소설의 독자였다. 특히, 규방가사는 당시 여성들의 의식세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작품군이다. 계녀가에서는 유교적 규범에 입각한 가문 유지에 대하여 매우 보수적인 의식을 보여 주는 반면, 화전가나 자탄가에서는 규범의 속박에서 일탈하여 자유로워지려는 욕구를 강하게 표출하기도 한다. <연행가>의 작가의식은 이런 여성문학의 풍토를 염두에 두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연행가>의 작가의식에 대한 연구는 대체로 작가가 사신의 일원으로 공식적인 임무를 띠고 다녀온 여행이라는 점에 무게를 두고 진행되어 왔다. 그런데 작가 홍순학은 서장관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띠고 사행길에 올랐지만 공식일정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언급하는 데서 그쳤다. 공식행사인 査對, 장계 준비, 사신의 최대 임무인 청나라 예부 방문과 황제 배알, 귀국 후 복명 등에 대해서 언급은 했지만 비중 있는 서술은 하지 않았다. 사대의 경우만 하더라도 행사 절차가 매우 엄중하게 진행되는데 비해 <연행가>에서는 아주 가볍게 언급하고 지나갔다.³⁸⁾ “황주성너 들어가서 스덕히고 숙소흐니” 마침 보름날이라 월파루에 달구경을 떠났고³⁹⁾, “운주현 스대히고 망경누 올라본 후” 백상루 구경을 떠났다⁴⁰⁾라고 스쳐지나가

38) <연행가>에서 사대 등 연행 관료로서의 활동에 대한 논의는 공해정, 『연행가에 나타난 홍순학의 사대부의식과 대외관 연구』(부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참조.

39) 심재완, 앞의 책, p.448.

40) 심재완, 앞의 책, p.456.

듯 표현했다. 사행의 궁극적 임무라 할 수 있는 예부 방문 장면은 직접 살펴보자.

네부지휘 드리여서 포즈문 진정홀츠 / 네부의 나아가서 디청 우히 올라가
 메 / 네부상서 나와서니 보석중죽 일품이오 / 네부시랑 나와서니 산호중죽
 이품이오 / <…> / 공노잇는 스랍들은 공죽우을 달아스며 / 관복이라 하는
 거슨 거문비단 소두루막이 / 오식으로 수는 흥비 압뒤호로 부쳐더라 / 즈문을
 밧드려서 상서에게 봉전하고 / 삼사신 꾸러안져 아홉 번 고두하녀 / 네필 후
 도라오니 스신홀일 다하넛다 / 무어스로 소일하리 구경이나 가즈셔라⁴¹⁾

표자문을 바치려고 예부를 방문했을 때의 장면이다. 예부상서 이하 품계 별로 관복을 차려입고 늘어서 있는 관리들의 모습이 장엄해 보인다. 그러나 표자문을 올리는 장면은 간략하게 요약하는 데서 그쳤다. 예를 표한 후 돌아와서는 사신으로서 할 일 다 했다고 환호했다. 공식 임무가 끝나자마자 소일 거리를 찾으며 북경 시내 구경에 나선 것이다. 황제를 배알하는 일은 사신으로서 매우 중차대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가볍게 처리했다. 그리고 명나라 명문거족의 후예들을 만났을 때도 서양인들이 조선을 침범한다는 급보를 듣고 대경실색했다고 했지만 더 이상 당시의 급박한 현실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대신 서양인들의 외모를 일일이 묘사하면서 사람이 아닌 짐승이라고 폄하하는 데서 그쳤다. 그렇게 한 것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끔찍한 짐승 같은 인종, 양귀자가 있었음을 소개하는 데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연행가>는 공식적으로 보고하는 글이 아니고 집안의 여성들에게 재미있게 읽혀야 하는 개인적 문학작품이기 때문에 딱딱한 의전장면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거나 서세동점의 불안의식을 조장하기보다는 흥미로운

41) 심재완, 앞의 책, p.496.

불거리를 제공해 주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던 것이다.⁴²⁾

<연행가>의 작가의식에 대한 연구는 주로 대명의리론과 대청의식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작가의식을 논의한 연구자들은 근대로의 이행기인 19세기라는 시대, 조선보다는 선진문화를 가지고 있는 청나라를 방문하는 사신의 현실인식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작품을 대했던 것 같다. 그래서 보수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작가에 대한 아쉬움, 부족한 대외인식으로 인한 사후조치의 미흡함에 대한 불만⁴³⁾, 중세 의식과 근대 의식의 긴장을 잘 담아낸 이행기 문학으로의 의의⁴⁴⁾, 청나라에 대하여 즉각적이고 즉물적으로 인식한 한계⁴⁵⁾ 등의 견해들을 내놓았다.

그런데 홍순학은 경화세족에 속하는 노론계 南陽 洪氏 가문에 태어났다. 홍순학도 16세에 소년급제하여 여러 벼슬을 거쳐 대사헌까지 지냈다. 서인들은 대체로 청나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보수주의자들이었다.⁴⁶⁾ 홍순학의 경우, 어떠했는지 <연행가>를 통해 살펴보자.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작품 서두에서는 사신임명을 받고 소년공명을 자랑스러워하며 출발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국내여정에서는 거쳐 가는 지역의 역사와 풍물을 대하는 감회와 연회 분위기에 익숙해져 가는 豪興을 중심으로 여정 진행을 하였다. 서두의 정서가 국내여정 내내 지속되고 있

42) 『日省錄』(1866년 8월 23일)의 서장관 『聞見別單』과 『承政院日記』(1866 8월 23일) 참조. 사신단이 복귀한 후 사신일행이 임금을 배알했을 때, 사행길에서 본 조선 백성들의 생활, 청나라 내의 농사나 비적들의 동향, 서양인들의 동태 등에 대하여 자세하게 보고한 내용이 있으나 <연행가>는 목적이 다른 데 있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대부분 생략했던 것이다.

43) 김병철, 「연행가사의 제언과 <연행가>를 통해 본 전환기 조선」, 『한국사상과 문화』 제52집(한국사상문화학회, 2010) 참조.

44) 우하림, 앞의 글, pp.61-64.

45) 이동일, 앞의 글, p.64.

46) 홍순학의 가문과 대청의식에 대해서는 공혜정, 앞의 논문, pp.13-22, 참조.

었던 것이다. 사신 행렬이 지나는 연도의 백성들이 “장흥도다 저 스또야
 춘츄가 언마신지 / 저러툃 소년서장 이 근년의 처음일다”라고 칭송하는 말
 에 한층 고무되는 모습도 보여주었다. 국경에서는 집 떠난 객수에 짓기도
 하고, 강 건너 보이는 소슬한 풍경을 보면서 망연한 앞길에 대하여 걱정하
 며, 마지막으로 열린 전별연의 취흥과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와 같
 이, 국내여정에서는 장엄한 사신 행렬에 동참, 융숭한 대접을 받으며 여행
 을 떠난 소년서장의 들뜬 관료의식이 중심을 이루고 사행의식이나 현실인
 식은 거의 배제되어 있다.

압록강을 건너 청나라 지경으로 들어가면 화자의 정서는 확연히 달라진
 다. “앗가가지 귀튼 몸미 어이 졸지 천혀여서 / 일등명창 진지거릭 슈청기
 싱 어딴가고 / 만반진슈 조흔 반찬 젓반도 없스나마” 건양청 밥 한 그릇을
 달게 먹는 것이 우습다고 했다. 갑자기 눈앞에 닥친 황량한 대륙, 거칠어진
 음식과 험한 잠자리에 대한 탄식이 이어진다. 그런 가운데 청나라에 대한
 몇 가지 시선이 보인다.

우선, 이념적인 면에서 대청의식을 살펴보자. 대청의식은 조선 사대부들
 이 가지고 있었던 ‘소중화의식’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 성리학을 이념으로
 강한 소중화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조선 사대부들에게 청나라는 오랑캐의
 나라에 지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자호란 후 청나라에 굽히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자 자존심이 상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
 서 소중화의식은 청나라에 치욕적인 굴욕을 겪은 조선 사대부의 역사의식
 의 원천이기도 하다.

물건이 풍비허여 업는 거시 업다허네 / 십즈가 네거리의 이층집 스문통이 /
 거리거리 눕히 잇서 변화허고 응위허다 / 오는 스름 가는 스름 거마가 미만허
 여 / 정신이 어득허여 향방을 못홀너라 / 슬푸다 서문밧기 삼혹스 통혼의빅 /

만니밧긔 의롭다가 우리 보고 반기는 듯 / 들으니 남문 안의 요션관이 잇드하
니 / 효종디왕 들어오샤 몇히 슈육 흐섯는가 / 병즈년 이 원슈를 어느 날 갑하
보니 / 후세인신 네 지닐 제 분흔 므음 뉘 업스랴⁴⁷⁾

딕릉하 다다르니 물빛도 적탁하며 / 풍세는 위름하여 흥흥흥 물결이라 /
슬푸다 딕명 적의 유장군 수십만 명 / 일시의 함몰하여 이 물의 썩져자니 /
므춤 이리 지날 적의 엇지 아니 창감하랴⁴⁸⁾

앞 대목은 봉천, 뒷 대목은 대능하에서 그곳에 얹힌 역사를 회고하고 화자의 생각을 술회한 것이다. 봉천에서는 변화하고 웅장한 건물들이 즐비한 길거리, 그리고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거리를 가득 메운 사람들과 거마들에 놀라면서도 삼학사의 충심과 효종대왕의 치욕을 생각하고 병자년 원수에 대하여 분노를 터뜨렸다. 놀랄 만큼 번성한 청나라의 문화는 인정하되 이념적으로 청나라는 여전히 조선의 원수였던 것이다. 대능하에서의 술회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해 볼 수 있다. 劉綎은 왜군 퇴치를 위하여 원군으로 조선에 온 적이 있고 조선과 명나라 연합군이 청나라의 전신인 後金を 칠 때 출전하여 전투를 벌이다 전사한 명나라 장군이다. 청나라에 사신으로 가면서 이 나라에 패하여 죽은 명나라 장군을 생각하고 슬퍼하고 있는 화자의 복잡한 정서를 짐작할 수 있다.

이런 정서는 시종일관 지속된다. 봉황성에서 본 청나라 사람들의 모습과 풍속⁴⁹⁾, 요동성의 창시노름⁵⁰⁾ 등 청나라의 특이한 풍속에 대해서는 호기심이 발동하였고 요동성의 관제묘⁵¹⁾, 의무려산의 북진묘와 절⁵²⁾, 북경 인

47) 심재완, 앞의 책, p.476.

48) 심재완, 앞의 책, p.480.

49) 심재완, 앞의 책, pp.462-470.

50) 심재완, 앞의 책, p.474.

근 동약묘⁵³⁾ 등에서는 그 규모와 화려한 모습에 놀라워하면서 자세하게 묘사하였다. 그렇다고 해서 오랑캐 청나라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뀐 것은 아니다. 효종대왕이 시조를 남긴 청석령에서는 창감함⁵⁴⁾을, 영원성에서는 청나라에 투항한 명나라 충신 조대수 형제의 배신에 대한 부끄러움을, 산해관 정녀사에서는 맹강녀의 굳은 절개에 대한 추모의 정을, 산해관에서 명나라를 배신하고 청나라 장수가 되어 명나라 운을 다하게 한 오삼계에 대해서는 비감함을, 고죽성 백이숙제의 절의와 과부성 송과부의 명나라에 대한 충절에 대해서는 존경심⁵⁵⁾을 표했다. 명나라를 배신하고 청나라에 투항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부끄럽고 참담하다고 하고, 망한 명나라에 대해서는 안타까워했다.

의주에서 북경까지의 사행은 우리나라와 중국 간 투쟁의 역사를 지닌 지역, 명나라와 청나라의 접경지역을 거쳐 가야 하는 여정이었기 때문에 역사적 사연이 얹힌 지역이 많았다. 그런 지역을 지날 때 화자는 역사의식을 분명하게 드러냈다. 청나라는 우리의 역사와 관련해서는 원수의 나라로, 명나라와 비교했을 때는 철저하게 오랑캐의 나라로 인식했다. 청나라의 여타 문화가 아무리 특이하고 번성해도 그것은 구경거리 이상은 아니었다. 이념적인 면에서, 불교 사찰이나 도교 사원은 종교의 성지로서가 아니라 구경거리로, 충절을 지킨 사람들의 사당은 진정으로 섬겨야 할 성지로 생각했다. 그리고 압록강을 건너 북경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에서는 사신으로서의 공식적인 활동이나 사행단의 움직임에 대한 서술은 전혀 없다. 개

51) 심재완, 앞의 책, pp.472-474.

52) 심재완, 앞의 책, pp.476-480.

53) 심재완, 앞의 책, pp.488-492.

54) 심재완, 앞의 책, pp.470-472.

55) 영원성과 과부성까지의 사연에 대해서는 심재완, 앞의 책, pp.482-486.

인적인 여행의 기행문에서 볼 수 있는 전문과 정서가 드러나 있을 뿐이다.

북경에 도착한 이후의 여정에서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다. 북경에 오기까지의 먼 여정과는 달리 북경 시내에 국한된 여정은 조선과 청나라, 명나라와 청나라의 국제관계보다 북경의 문화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자금성, 유리창, 대형 사찰 등 보는 사람의 입이 떡 벌어지게 만드는 규모와 외관에 감탄하고 시정 풍속을 흥미롭게 바라보는 화자의 모습이 자주 묘사된다. 儒者의 자세를 버리고 遊子로서 이념을 배제하고 새로운 문명공간을 현실적으로 파악하고 흥미로운 볼거리를 제시하고자 했기 때문에 북경 시내 여정에서는 화자의 청나라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뀐 것처럼 보인다.⁵⁶⁾ 그래서 이런 점을 두고 화이관을 극복했다고 평가하기도 한다.⁵⁷⁾ 그러나 명나라 숭정황제 순절터인 매산각에서는 비탄에 빠지고⁵⁸⁾ 태학을 찾아가서는 대성전에 경건하게 참배했다.

티혹을 츠즈가서 디성전의 스비히고 / 전늑을 봉심흐니 불근위워 피셔노코 /
디성지경 공즈신위 금즈로 여롭즈요 / 안증스밍 넷 성인은 동서로 피섯스며 /
공문 칠십이 제즈와 한당송명 선현니도 / 쓸아리 좌우익낭 츠레로 빅향이오⁵⁹⁾

춘츄가 십일세라 어린 티도 어엿부다 / 가름흐온 얼골밭탕 일월각이 공골
츠고 / 즈그마흔 논모양이 안치가 둘울흐다 / 누른 비탄 두루마기 말익이도
누르더라 / 천하의 제일인이 호복흐신 저란 말가⁶⁰⁾

56) 우하림, 앞의 글, p.45, 61.

57) 조규익, 앞의 책, p.237.

58) 심재완, 앞의 책, p.502.

59) 심재완, 앞의 책, p.512.

60) 심재완, 앞의 책, pp.548-550.

앞 대목에서는 태학을 찾아 가서 대성전에 사배하고 전각을 엄숙하게 둘러보면서 여러 성현들 위패를 살피는 경건한 마음을 읽을 수 있다. 그러나 뒤 대목에서는 청 황제의 행차에서 어린 황제를 보고서 시정 어린아이를 본 듯 가볍게 묘사했다. 그리고 천하의 제일인인 황제가 호복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실망하고 황제를 가리켜 “저”라고 했다. 황제의 위엄이나 존엄성은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이어지는 대목에서는 “일노써 헤아리면 구물이 금즉흥다 / 관소로 도라오니 홀일이 브히업닌”라고 했다. 황제 행렬의 군율은 모든 사람이 아무 소리를 못 낼 정도로 엄숙하고 정제되어 있다고 하고는 더 이상 아무 언급 없이 바로 숙소로 들어와서는 할 일이 전혀 없다며 심심해 했다. 황제 행렬은 여러 가지 구경거리 중 하나였을 뿐이다. 그리고 명나라 후예의 집에 초대되어 가서 대접받은 가지가지 음식에 대해서는 “종일토록 먹고나니 이로 기록 못홀너라”⁶¹⁾라고 격찬하면서 황제의 上馬宴에 차린 음식에 대해서는 푸닥거리 상에 비유하면서 “비위가 뒤집혀서 먹을 거시 바히 업닌”⁶²⁾라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러한 상반된 태도는 화자의 對明, 對淸 의식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서양에 대한 인식은 청나라에 대한 인식보다 한층 더 부정적이다. 마치 못해 삭발하고 부끄럽고 분한 마음으로 청나라에 벼슬하고 있는 명나라 명문거족의 후예들을 만나서 형제 같이 반가워하고, 그들과 매일 만나 필담을 나누며 날 가는 줄 모르고 즐거워하다가⁶³⁾ 황낭중으로부터 서양인들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된다.

도라오며 싱각히니 양귀즈눔 통분코나 / 황성안을 싱각히도 서양관이 여러

61) 심재완, 앞의 책, p.556.

62) 심재완, 앞의 책, p.560.

63) 심재완, 앞의 책, pp.550-558.

히오 / 처처의 천쥬광과 스흑편만 흐엿다며 / 큰길의 양귀즈들 무상이 왕니호
 네 / 눈썹은 움쑹하고 코마루는 웃둑호며 / 머리털은 발간 거서 곱실곱실 양피
 갖고 / <...> / 답팔답팔 발간 머리 식노란 둥근 눈썹 / 원숭이 샷기들과 천연
 이도 흡스흡사 / 정녕이 짐승이오 사름 풍즈 아니로다 / 저러툇 슝요물 침노
 아국 되단말가⁶⁴⁾

황낭중이 비밀리에 필담으로 서양 사람들이 조선을 침노할 것이라는 급보를 전하자 통분하다고 하며 그 생긴 모습을 묘사한 대목이다. 한 번도 보지 못한 서양 사람의 생긴 모습이 양귀자라고 하더니 나중에는 원숭이와 흡사하여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라고 했다. 그런 짐승 같은 요물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통분할 일인 것이다. 이러한 모습들에서 화자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소중화의식이 깊이 자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⁶⁵⁾ 그리고 서양 사람들이 어떻게 청나라에 그렇게 많이 들어와서 활보하고 다니는지, 그들로 인해서 야기된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리고 이런 서양 사람의 동태가 심상치 않다며 “존형은 아모조록 썰이 도라 갈지어다”라고 하는 황낭중의 말을 듣고 대경실색했다고 했지만 그 이후 작품 결말에 이르기까지 이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객관적인 현실인식보다는 특이하게 생긴 서양 사람들을 봤다는 것을 독자에게 알려주는 데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홍순학은 젊은 나이에 사행단의 일원으로서 북경에 가게 되어 평생소원

64) 심재완, 앞의 책, pp.558-560.

65) 『일성록』(1866년 8월 23일)과 『승정원일기』(1866년 8월 23일)의 기록에 의하면, 중회당에서 삼사신이 임금을 배알하는 자리에서 임금이 청나라 내 서양인들의 동태에 대해서 묻자 정사 유후조가 결론적으로 “양이가 비록 교활하고 추악하지만 邪道가 正道를 이길 수는 없는 것이니 어찌 오래 갈 수 있겠습니까?”(洋夷雖狡醜, 邪不勝正, 豈能久乎?)라고 했다. 서장관 홍순학도 생각이 다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기록에서도 정확한 현실인식보다는 보수 사대부의 소중화의식을 확인할 수 있다.

을 풀게 된 것에 들떠서 긴 여정에 올랐는데 그런 정서의 이면에는 청나라에 간다는 것보다는 중화문화의 중심, ‘중원’에 간다는 데서 오는 자부심이 자리잡고 있었다. 그 자부심은, 중원은 이제 명나라가 망하고 청나라가 들어서면서 오랑캐의 나라가 되었고 오직 조선만이 중화문화의 전통을 유지하고 있다는 ‘소중화의식’에서 연유한다. 이런 소중화의식은 <연행가>의 이념적 근간을 이루어 작품 전반에 걸쳐서 시종일관 표출된다. 홍순학의 이러한 보수성은 남양 홍씨 집안 남성들은 물론 여성들에게도 똑같이 나타나는 현상일 것이다.

이렇게 보수성을 보여주는 한편, <연행가>는 여성들에게 관심을 끌 만한 흥미거리 중심으로 전개했다. 사신으로서 공식적인 여정이나 국내의 현실에 대한 내용은 최소화하고, 여성 취향의 볼거리에 치중하며 유락적 성격을 지니는 연회 장면들을 생생하게 묘사하는 것은 규범을 벗어나는 행위이다. 이런 현상은 보수 사대부인 홍순학 역시 당시의 문학적 풍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이것이 <연행가> 작가 홍순학이 가지고 있었던 작가의식의 양면성, 즉 보수성과 개방성일 것이다. 이런 작가의식은 19세기의 규방가사가 <계녀가>류에서는 강한 보수주의적 성향을 보이는 한편, <화전가>류나 <자탄가>류에서는 기존의 규범에서 자유로워지고자 하는 일탈성을 보이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즉 기존의 성리학적 이념에서 끊임없이 벗어나려고 하는 당시의 시대적 상황 속에서 보수 사대부가의 사람들이 자신의 신분과 생활의 명분이 되는 성리학적 이념을 굳건히 지키면서 변해 가는 사회의 흐름을 타고 있었던 모습을 이들 작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작품에 나타난 소중화 의식과 같은 보수성은 유흥 장면의 구체적 묘사 등 흥미 위주로 흐른 <연행가>를 자유롭게 향유할 수 있게 하는 명분이 되기도 했을 것이다.

IV. 마무리

문학작품은 텍스트 자체로 존재하기도 하지만 독자를 만나 실현화되는 것이다.⁶⁶⁾ 따라서 텍스트 연구와 함께 실현화의 주체인 작가와 독자에 대한 연구 역시 작품 이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영역이다. 지금까지 작품과 작가에 대한 연구는 어느 정도 축적되어 있지만 독자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작가와 작품, 그리고 독자의 상관관계를 통해서 홍순학의 <연행가>를 구명해 보았다.

작가는 자신의 표현 욕구에 따라 작품을 창작하지만, 창작 시 예정된 독자가 있다면 독자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연행가>는 예정된 독자가 있었고, 그 독자는 집안 여성들이었다. 사신으로서 공식적인 여정을 소화해야 하는 입장과 작품을 기다리고 있는 여성 독자들의 관심 사이에서 작가는 많은 고민을 했을 것이다. 작가 홍순학은 전자보다는 후자에 무게를 두고 <연행가>를 지었다. 공식적인 여정은 최소화하고 여성들의 관심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견문과 경험을 선별하여 흥미 위주의 작품을 창작한 것이다. 공식적인 여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탈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연회 장면을 여러 차례 상세히 묘사해 보인 것도 여성 독자들의 흥미를 복돋우는 데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점은 19세기 당시 성리학적 규범에서 일탈하여 유흥적 풍조로 흘렀던 문학적 변모와 관련하여 논의해 보았다.

작가의식 또한 독자와 무관하지 않다. <연행가>는 여성 독자들을 위하여 창작된 작품이기 때문에 사신의 서장관으로서 국내외 정세에 대하여 언급한 내용은 거의 없다. 있다 하더라도 많은 사건들 중 하나로 언급하고 가볍게 넘겼다. 그것은 관리로서의 현실인식보다는 흥밋거리를 요구하는

66) 김학성, 『가사의 실현화과정과 근대적 지향』, 『국문학의 탐구』,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1987, pp.147-148, 참조.

여성들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한편, 홍순학은 당시의 보수적인 서인 명문거족 출신인데 <연행가>에도 시종일관 보수적인 ‘소중화의식’이 자리잡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청나라의 앞선 문물에 대하여 경탄 어린 시선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여행지에서 처음으로 경험한 견문에 대한 놀라움이지 청나라에 대한 오랑캐 의식이 약화되거나 없어진 것은 아니다.

여성 독자를 전제로 한 <연행가> 이러한 보수성과 개방성은 보수적인 <계녀가>류, 그리고 거기서 일탈하려는 <화전가>류와 <자탄가>류가 공존했던 규방가사와도 상관이 있다. 나아가 소중화의식과 같은 보수성은 흥미 위주로 흐른 <연행가>를 여성들이 자유롭게 향유할 수 있는 명분이 되기도 했다.

이와 같이 볼 때, <연행가>는 여성 취향의 작품으로서 기존 사대부 문학의 규범을 일탈하여 흥미 본위로 작품을 구성하고 당시 문학의 풍조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개방성을 보여 주면서도 강한 소중화의식으로 무장한 보수성을 띠고 있기도 하다. 이것이 매우 보수적인 것 같지만 개방적인 성격을 지닌 <연행가>의 양면성, 이행기 문학적 성격이다. 극히 보수적인 사대부의 문학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변화는 19세기 후반의 거센 문학사적 흐름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 고전자료편찬실, 『규방가사』 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79.
임형택, 『옛노래, 옛사람들의 내면풍경』, 소명출판, 2005.
임기중, <연행가>(1957) 『역대가사문학전집』 42, 아세아문화사, 1998.
임기중, 『연행가사연구』, 아세아문화사, 2001.
최강현, 『기행가사자료선집』 1, 국학자료원, 1996.
홍재휴, 『북행가 연구』, 효성여자대학교 출판부, 1991.
『承政院日記』(1866년 8월 23일)
『日省錄』(1866년 8월 23일)
www.gasa.go.kr(한국가사문학 DB)

2. 논문 및 단행본

- 고순희, 『<군산월애원가>의 작품세계와 19세기 여성현실』, 『이화어문논집』 제14집, 이화어문학회, 1996, p.92.
공혜정, 『<연행가>에 나타난 홍순학의 사대부의식과 대외관 연구』, 부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곽미라, 『<임자연행별곡>의 작자와 창작시기 변증』, 『한국고시가문화연구』, 한국고시가문학회, 2012, pp.5-30.
김시엽, 『북천가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5, p.3, p.69.
김유경, 『19세기 연행 문학에 나타난 중국 체험의 의미』, 『열상고전연구』 제21집, 열상고전연구회, 2006, pp.31-64.
김윤희, 『19세기 장편 연행가사에 보이는 연경 풍물의 감각적 재현 양상』, 『우리어문연구』 제54집, 우리어문학회, 2016, pp.244-251.
김윤희, 『조선후기 사행가사의 세계 인식과 문학적 특질』,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김정화, 『19세기 연행가사에 나타난 대외관 및 서술태도에 대한 연구』, 『어문논총』 제58호, 한국문학언어학회, 2013, pp.193-221.
김학성, 『가사의 실현화과정과 근대적 지향』, 『국문학의 탐구』,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1987, pp.147-148.

- 우하림, 「<병인연행가>의 작자의식과 서술특성」,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 유정선, 「18·19세기 기행가사의 작품세계와 시대적 변모양상」, 18·19세기 기행가사 연구, 도서출판 역락, 2007, pp.138-142.
- 이동일, 「<병인연행가>에 나타난 서술자의 복합적 시선과 그 의미」,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pp.21-25.
- 이병철, 「연행가사의 제언과 <연행가>를 통해 본 전환기 조선」, 『한국사상과 문화』 제52집, 한국사상문화학회, 2010, pp.43-70.
- 이원주, 「가사의 독자」, 『조선후기의 언어와 문학』, 형설출판사, 1980, pp.133-166.
- 이주영, 「연행가고」, 『한국고전시가작품론』 2, 집문당, 1992.
- 조규익, 「사행가사의 해외체험과 세계관」, 『국문사행록의 미학』, 도서출판 역락, 2004, p.206.
-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제4판, 지식산업사, 2005, p.356.
- 채송화, 「<을병연행록>과 여성 독자」, 『민족문학사연구』 제55집, 민족문학사학회, 2014, pp.427-461.
- 최미정, 「연행가사의 국내 여정에 나타난 취한 사행의 모습과 그 의미」, 『한국학논집』,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10, pp.411-413.
- 최상은, 「유배가사의 작품구조와 현실인식」, 정문연 석사학위논문, 1983, p.31.
- 한영규, 「새자료 <무자서행록>의 이본으로서의 특징」, 『한국시가연구』 제33집, 한국시가학회, 2012, pp.191-224.

Abstract

Reader and author's awareness of <Yeonhaengga>

Choi, Sang-eun

The literary work exists in the text itself. It is realized by meeting the reader. Therefore, research on authors and readers with text studies is also a very important area for understanding the work. In this paper, through the relationship between authors' works and reader, I tried to study Hong Sun Hak's <Yeonhaengga>.

<Yeonhaengga> had scheduled readers. These readers were domestic women. Based on personal tour rather than official duties, the author weighted the attention and demand of female readers. The author created an interesting piece of work for female readers by minimizing official journey. Although it was a formal journey, describing details of entertainment was to increase interest of female readers. This is related to literary history of the 19th century which deviated from the norm of Neo-Confucianism to entertainment trend.

The author's awareness is related to the reader as well. Because <Yeonhaengga> is a work created for female readers, there is few mention about the circumstances of domestic or foreign matters in this work. This might be because author wanted to meet the needs of women who demanded factoid rather than the awareness of a reality.

On the other hand, I was able to confirm that Hong Sun Hak had a conservative 'small Sinocentrism' on the whole piece of work. This work showed a surprise for advanced civilization of Qing Dynasty. However, it did not mean that the view that Qing Dynasty was savaged, weakened, or forgotten.

As a result, <Yeonhaengga> is open to breaking of literary norms of Sadaebu and actively accepting new literary trends as a work of feminine tastes. However, this work has strong 'small Sinocentrism' on the other hand. This is literary personality of transition period of <Yeonhaengga> that seems

to be very conservative. However, it has an openness.

Key Word : envoy, tour, female reader, author's awareness, conservative, openness

최상은

소속 : 상명대학교 한국언어문화학과 교수

전자우편 : sechoi@smu.ac.kr

이 논문은 2017년 10월 30일 투고되어 2017년 12월 5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7년 12월 8일 게재 확정됨.
--